

독일 예술출판사들의 장인적 저력

예술출판 137년의 전통깊은 출판사도

출판사는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에만 치중해서 안된다. 학술적인 가치를 문서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곧 출판인들의 의무임은, 올해로 창립 137년을 맞는 전통깊은 브루크만(Bruckmann) 출판사의 경우에서 증명된다.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신념

브루크만 출판사에서 한해 동안 출간되는 100여종의 목록은 여느 예술서전문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이익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역시 오랜 기간의 계획과 준비를 거쳐 완성되는 기획물들은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브루크만 출판인들의 용기와 자부심을 대변한다.

지난해 12월에 완결된 「뮌헨 예술에 관한 브루크너 백과사전」(총6권)은 1981년에 제1권이 출간된 이래 1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집대성된 사료로서, 출판인의 노력과 장인정신의 결정체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인정신을 뒷받침해주기까지에는 1858년 출판사의 설립당시부터 도입한 새로운 인쇄기술이 큰 몫을 담당했다. 독일 최초의 인쇄소를 함께 운영했던 브루크너 출판사는 절감된 제작비용으로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우수한 제본상태의 예술서를 공급하여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온 기술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브루크만 출판사는 1997년경 출

간 예정인 또 하나의 대작을 준비중이다. 19세기 당시 야방가르드의 중심지였던 뒤셀도르프 화풍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백과사전의 형식으로 파내기 위해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들 및 뒤셀도르프 예술박물관측과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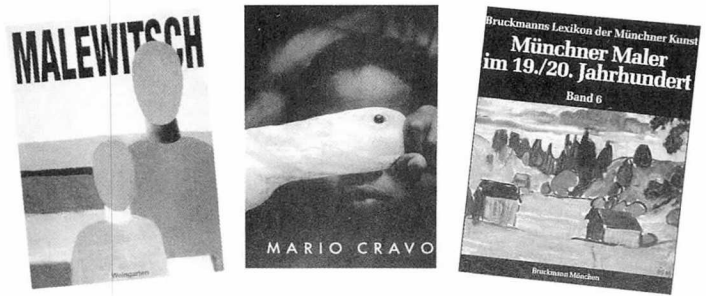
거의 모든 방면의 예술서는 물론 여행과 스포츠에 관한 실용서와 최근에 들어서는 비디오 제작까지 겸하게 된 브루크 출판사의 슈티프너 사장은 다양한 기획 가운데 예술은 항상 그 으뜸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패기찬 신진출판사

토마스 슈테믈러가 1986년 사진서적전문 출판사인 에디치온 슈테믈러(Edition Stemmler - 이하 슈테믈러 출판사로 칭함)를 설립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출판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제 겨우 10년이란 짧은 역사를 지닌 슈테믈러 출판사는 설립당시부터 일찌감치 전세계 출판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삼아 탄탄한 수출입체로 급성장한 경우이다. 수개국어에 능통한 슈테믈러 출판사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활동중인 슈테믈러씨는 직접 세계각지를 돌며 우수한 사진작가들과 교섭, 그들의 사진집을 영어본으로 출간하기 시작했다.

좋은 작품을 찾아내기까지 앞으로도 더욱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는 슈테믈러 출판사는



왼쪽부터 바인가르텐, 슈테믈러, 브루크만 출판사가 펴낸 예술서들.

이미 굵직굵직한 타이틀로 전세계의 독자들에게 친숙해져 있다. 지난해 최고의 사진도서상을 수상한 마리오 크라보의 사진집을 비롯해 다다이즘의 멘레이의 모든 작품이 수록된 사진집도 그중의 하나이다. 특히 멘레이의 사진집을 소재자의 특별판으로 재발간하여 롱셀러로 판매를 배가시킨 것도 슈테믈러 출판사의 뛰어난 기획력의 하나였다.

슈테믈러 출판사는 이제까지 유럽과 미국에 치중했던 출판시장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시대정신을 보다 아름답게 담아내기 위한 또다른 기회를 모색중.

감춰진 예술의 끊임없는 발견

예술적인 진가를 지닌 작품과 사료들을 발굴하여 살아 있는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바인가르텐(Weingarten) 출판사의 노력은 그동안 마디마디가 잘리어졌던 예술사의 흐름을 하나의 줄기로 이어주었다.

70년대 중반 무렵, 예술가들이 제작에 참여한 예술달력을 발행하면서 출발한 바인가르텐 출판사는 1982년 바우하우스(Bauhaus)에서의 칸딘스키 수업에 관한 책을 출간하면서 본

격적인 예술서 출판작업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바인가르텐 출판사는 바우하우스를 주제로 하는 출판물의 기획에 주력했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공예학교로 잘 알려진 바우하우스의 주인공들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내용으로 담아낸 「바우하우스 베를린(Bauhaus Berlin)」의 출간도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기심을 갖고 감추어진 예술을 끊임없이 발견해내려는” 노력으로 출간한 러시아 구성주의의 대가 타틀린(Tatlin)에 관한 연구논문과, 러시아 야방가르드의 중심인물이었던 카시미르 말레비치(Kasimir Malewitsch)의 작품에 대한 발굴작업은 예술사적으로도 커다란 성과로 기록된다.

지난해만 해도 90여종의 도서를 발행한 바인가르텐 출판사는 올해 놀랄만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팝 아트 이전시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집 「천사들」과 「고양이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잠재독자층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는 자신감에서 예술출판사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문성원>

●●●의 차별성은 이렇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p> <p>소 설 ▶ 『오에 캔자부로 대표작선집』 『길을 잃어야 새 길을 만난다』</p> <p>인문 과학 ▶ 『한국인의 조형 의식』 『한국인, 조센징, 신조선족』</p> <p>미술 서적 ▶ 『레터링의 역사』, 『선물 포장』, 『포장디자인』</p> <p>대학 교재 ▶ 『몬테소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p> <p>무협 지 ▶ 『녹정기』, 『춘추필』</p> | <p>가 격 사 양 (단행본 기준)</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 국 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편집 (사식 포함)</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5,500원</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필름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6,0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 식</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 식</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3,000원</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필름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4,0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6배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편집 (사식 포함)</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8,000원</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필름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8,5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 식</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 식</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5,000원</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필름 출력시</td> <td style="padding: 2px;">6,000원</td> </tr> </table> | 신 국 판 | 편집 (사식 포함) | 인화지 출력시 | 5,500원 | 필름 출력시 | 6,000원 | 사 식 | 사 식 | 인화지 출력시 | 3,000원 | 필름 출력시 | 4,000원 | 4×6배판 | 편집 (사식 포함) | 인화지 출력시 | 8,000원 | 필름 출력시 | 8,500원 | 사 식 | 사 식 | 인화지 출력시 | 5,000원 | 필름 출력시 | 6,000원 | <p>혹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없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QUARK을 통한 잡지나 사보 레이아웃 ② Photoshop, Illustrator, FreeHand, NoteWriter, Excel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③ Fontographer를 이용한, 나오지 않는 한자 및 지원되지 않는 수식의 해결 능력 ④ 매킨토시뿐 아니라 IBM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⑤ 2급 이상의 타자 속도 ⑥ 교정·교열 및 대지 작업과 제작에 대한 이해 <p>혹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p> <p>McIntosh 경력 3년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력을 가진 분을 새 가족으로 모십니다. 성별, 연령, 신체장애 등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p> |
| 신 국 판 | 편집 (사식 포함) | | | 인화지 출력시 | 5,5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필름 출력시 | 6,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식 | 사 식 | 인화지 출력시 | 3,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름 출력시 | 4,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4×6배판 | 편집 (사식 포함) | 인화지 출력시 | 8,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름 출력시 | 8,5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식 | 사 식 | 인화지 출력시 | 5,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름 출력시 | 6,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이런 경우에 더욱 효율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

| | | |
|-------------------|--------------------|--------------|
| ① 활판을 옵셋으로 바꾸는 경우 | ② 흑백 사진이 많은 정기 간행물 | ③ 전집류 출판 |
| ④ 장편 무협소설 | ⑤ 기타 대량의 출판물 | ⑥ 시한이 촉박한 원고 |

1995/03/05 31